

화학산업, 업·다운 모두 수출 부진

코트라·SERI, 4/4분기 수출선행지수 하락 ... 석유에 반도체·LCD도

국내 수출 시장이 4/4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코트라(KOTRA)와 삼성경제연구소는 해외 바이어, 상사 주재원 등 233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4분기 수출 선행지수가 51.9포인트로 3/4분기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선행지수는 2012년 4/4분기 50.7포인트로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 2013년 1/4분기 51.8포인트, 2/4분기 54.1포인트, 3/4분기 55.8포인트로 상승했으나 4/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입국 경기지수는 해외 바이어와 상사 주재원들의 현지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50.9포인트로 3/4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품질경쟁력지수도 56.3포인트로 0.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가격경쟁력지수는 49.4포인트로 0.1포인트 상승해 국내기업의 원가절감 노력과 엔저가 국내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철강 등은 수출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석유제품, 섬유, LCD, 반도체, 컴퓨터 등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실장은 “불안정한 글로벌 경기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출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11>